"소상공인 기본법 9월 국회서 제정을"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연초 법 통과 약속… 논의 안해 소상공인·서민 외면 병폐 극명"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9월 국회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총선의 회오리 속에 법 제정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은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서민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법안의 방향으로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은 5인 미만까지,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영업도 이 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경제학자들도 (자영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회는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도로公, 1000억 방글라 대교 수주 눈앞

10년간 파드마대교 운영·관리
이르면 연내 본계약 체결할 듯

방글라데시 칸드케르 안와룰 이슬람 BBA청장(왼쪽)과 신용석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장이 MOU 체결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향후 10년간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운영·관리 사업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2일 방글라데시 교량청(BBA)과 '파드마대교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BBA에 파드마대교 운영·유지관리 사업자로 한국도로공사를 공식 추천해 진행됐다.

이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업 수주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르면 연내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업소 요금징수,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순찰·재난관리 등 파드마대교의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0년간 약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파드마대교는 상층부 4차로 도로와 하층부 철도로 구성된 복층트러스교량으로, 총연장 6.15㎞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최대 특수교량이다.

파드마대교 건설공사는 2014년 시작됐으며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는 3조원 규모로 방글라데시 최대 토목사업으로 꼽힌다.

건설 시공은 중국 건설사가 맡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발주청인 BBA는 한국도로공사가 깊이 110m 이상인 연약지반 환경과 우기에 강이 범람하는 등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공정추진을 원활히 이끄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석 도로공사 해외사업처장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경험이 방글라데시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17일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을 찾아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중기중앙회-농협중앙회, MOU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 임직원들과 서울 서대문에 있는 NH농협은행을 찾아 직접 가입서를 작성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출시된 상품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인과 농업인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필승코리아 펀드의 가입 확산과 중소기업계의 참여를 위해 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펀드에 가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중소기업계가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보, 인니·말련에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현지서 보증기관 임직원 대상
금융지원방법 등 설명회 열어

기술보증기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 본사에서 현지 보증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가 끝난 후 (왼쪽 세번째부터)조규대 기보 전무이사, 아민 마수디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 상무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과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보증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과 이를 활용한 금융지원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보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와 KTRS를 활용한 금융지원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용보증공사(Perum Jamkrindo) 임직원들과 향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쿠알라룸푸르에선 말레이시아 신용보증공사(CGCMB)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KTRS를 통한 평가절차와 금융지원방법,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인증과 같은 기술평가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기보는 이들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KTRS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진출보증지원 등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거점을 확보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보 조규대 전무는 "기보는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페루에도 KTRS를 전수했다"면서 "나아가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럽형 기술평가서비스 플랫폼인 '이노레이트'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KTRS를 전수해 해외 기술평가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중진공, 태국에 '기술교류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태국 현지 기업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한·태국 기술교류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교류센터란 양국 정부 간 협의로 현지 정부기관 내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페루, 인도 등 5개국에 설치해 각 나라의 기업과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태국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진행한 개소식에는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 팔라린 옘찐다 태국 중소기업진흥청 부청장, 현지 진출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기술교류센터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승호 기자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내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2019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 서울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 우수 혁신기업 100곳이 참여해 인재를 찾는다.

동운아나텍, 그린코스, 라파스, 펍지 등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엔에프테크놀러지스, 캠시스, 이루다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수출기업들도 함께한다.

분야별로는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개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웹기반의 3D모델러 개발, 디스플레이 기구 설계, 국내·해외 영업, 회로설계 등의 채용분야에서 약 250여명의 R&D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R&D잡콘서트, 원스톱 취업준비관, 취업정보알림관 등 박람회에 찾아오는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영숙 서울지방중기청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에 우수한 혁신기업들을 참여시켜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은 중소기업의 인식개선 및 기업의 인력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